한일불교, 한마음으로 평화의 길 열다

6월 18일, 범어사서 제42차 세계평화기원법회

진우 스님 "신뢰 화합 50년 준비"
한일불교도, 축원으로 평화 기원
정부 · 종단 인사들 협력 의지
민간외교 불교 교류 가치 재확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일불교계가 6월 18일 범어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평화메시지를 공유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자비와 평화의 정신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인 '세계평화기원법회'가 6월 18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을 비롯한 양국 불교 지도자들이 동참해, 반세기에 가까운 교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양국 불교가 걸어온 48년의 교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며 "한일불교가 인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온 길은 신뢰와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드라망의 진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미래 50년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발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지금이야말로 양국 불교계가 지속가능한 미래 교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현대 사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에서 "초록의 빛깔과 맑은 소리,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한 범어사의 자연 그대로가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인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귀일심원(歸一心源)의 마음으로 현대 사회의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양국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계평화기원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불교를 통한 민간외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평화를 향한 실천적 연대를 다지는 계기로 의미를 더했다. 백제를 통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깊은 인연을 이어온 한일 양국 불교계는, 1977년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교류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교류를 지속해왔다.

특히 국교 정상화 이후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교류는 양국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정치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승·재가의 교류는 민간 외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켜 왔다.

부산 명지신도시에 동국대병원 들어선다

6월 19일, 부산시 · 동국대 등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 협약식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동국대학교병원을 포함해 명상, 문화, 주거 시설을 갖춘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명상센터도 함께 조성돼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시와 동국대,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19일 부산시청에서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동국대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업인 명지복합메디컬타운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조성될 종합병원급 규모로 동국대병원을 포함해 명상, 문화, 주거, 상업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공간이다. 6만4331㎡(약 2만여 평) 규모로 500병상과 암센터를 비롯해 국제명상센터, 전통사찰음식체험관, 수행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특히 명상센터의 경우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6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4자간 업무협약은 부산 서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신호탄이자 산학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주)엠케이에이에이치는 부산권 의료 서비스 향상과 제반 기반 시설 구축에 협력하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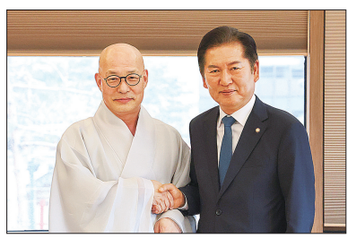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금까지 구상해온 국민 마음 평안 프로그램, 선명상을 통한 치유가 이곳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명지메디컬타운이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제2병원 건립을 위해 깊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화,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부산에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고품격 명상·문화·주거 공간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진우 스님, 정청래 의원에 "또다른 세계 도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힌 정청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정청래 의원에게 "이제부터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에너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새세상을 비춰달라"고 응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꼭 당대표가 되고 싶었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광주 전남에서 선거운동하며 백양사와 대흥사, 금산사에서 기도했다.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화재 공백 최소화…복구 모연 이어져

6월 16일부터 정상 업무
불교광장, 1억원 전달도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이 6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폐쇄된 가운데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3일 공개한 청사 내부와 피해 수습 상황에 따르면 현재 기념관은 분진으로 뒤덮혀진 상태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재시공 등을 실시하면 최소 2개월 후에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6월 16일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층 홍보관에 통합민원실을 마련해 사찰 증명발급, 주지 품신 등 사찰 지원 업무와 승적, 수계, 법계 품서 등 교무 관련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계사 인근에 부서별 임시 사무소를 개소해 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종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집무실과 접견실은 조계사 경내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6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종무원 전체회의에서 종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 부서별로 교류 협력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있도록 하자"면서 "용기 내 하나씩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원활한 복구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도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장단은 6월 16일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당일 현장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겪었기에 복구에 대한 염원이 더 크실 것 같다"며 "총무원장으로 덕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사찰에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1회장 만당 스님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3회 대표 삼조 스님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명과 성보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면서 "총무원 건물을 비롯해 각 교구마다 사찰 법당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구니 종책모임 회장 정운 스님은 진우 스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끝까지 잘 견뎌달라"고 했다.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도 진우 스님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원장 스님 덕화로 빨리 복구 될 것이다. 원활한 복구를 위해 기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대북 이규민-다문화 김형규 특보

6월 16일, 임명장 수여하며 격려


사진 왼쪽부터 이규민, 진우 스님, 김형규 특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6일 대북 종책특보에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을, 다문화정책 종책특보에 김형규 일일시호일 대표를 임명했다.

이규민 특보에게 새로운 정부와 대북 교류에 선제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진우 스님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형국이지만 불교문화 교류가 단초가 돼 정치적인 부분이 풀어나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북한에도 불교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문화정책 종책특보로 임명된 김형규 일일시호일 대표에게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한 때"라면서 "모든 계층에 전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감정은 버리고, 융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